범어사서 명품 보이차 선보여

범어사, '백팔 노보이차 대전' 개막
시대별 보이차 130여 종 선보여
韓·대만 문화 교류의 장으로 눈길
풍성한 다도(茶道) 행사 연이어져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2026 특별전 '백팔 노보이차 대전: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을 개최한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오랜 세월 숙성된 보이차의 깊은 향과 선(禪)의 묘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범어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시관에서 2026 특별전 '백팔 노보이차 대전: 세월이 빚어낸 영혼의 향, 노보이차의 궤적'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1950년대 이전 민간 차장의 혼이 담긴 호급차(號級茶)부터 1950~70년대 국가 차엽 공사의 인급차(印級茶), 1970년대 이후 현대 보이차의 대중화를 이끈 칠자병차(七子餠茶) 등 시대별 명품 노보이차가 총망라됐다. 특히 국내외 차인들의 뜨거운 호응이 이어지며 당초 예정된 108점을 넘어 130여 종의 진귀한 차품이 전시돼 이목을 끈다.

본격적인 전시의 막을 올린 10월 2일 개막식은 한국과 대만의 차 문화 교류를 상징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경기민요 전수자 김명서 등 4중주단의 국악 공연과 대만 연주자 구심열·구심의의 비파 연주가 성보박물관 중정에 울려 퍼지며 행사의 품격을 더했다.

이날 자리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과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등시해(보이차계 차왕), 백수청(보이차계 교부), 저우쯔(홍콩 사굉경매 총재) 등 세계 다도계를 대표하는 거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특히 대만의 '인간국보'로 불리는 첸즈쑨은 범어사 현판을 직접 제작해 기증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한 잔의 노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마음을 맑게 비추는 선(禪)의 통로이자, 시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익어감의 결정체"라며 "오랜 세월을 견디며 깊은 향과 맛을 품어낸 노보이차는 끊임없는 정진으로 마음을 비워내는 수행자의 삶과 참으로 닮아 있다"고 전시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시 공간 곳곳에는 효원 박태만 서예가의 작품이 함께 걸려 차선(茶禪) 일체의 울림을 전하고 있다.

이튿날인 10월 3일에는 성보박물관에서 '보이차계의 대부' 백수청 선생의 특별 강연 및 시음회가 열렸다. 백 선생은 자신의 차 인생을 비롯해 보이차의 산지와 품질, 맛을 감별하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이무 지역의 생차, 백 선생이 2008년 직접 제작한 차, 1950년대 홍인 계열의 노차 등 희귀한 차를 직접 시음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뜻깊은 위촉식도 진행됐다. 대만 중화차업협회는 한국과 대만의 지속적인 우호 증진을 위해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을 '한국우호 부회장'으로, 하윤당 김상숙 원장을 '한국우호 고문'으로 각각 위촉했다.

이번 '백팔 노보이차 대전'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지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다(매주 월요일 휴관). 범어사는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차의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특강 및 유료 행사가 없는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층 기획전시관 입구에서 무료 시음회를 상시 운영한다.

차에 대한 깊이를 더할 특별한 행사들도 준비돼 있다. 오는 10월 17일과 24일 오후 2시에는 1950년대와 80년대 명품 청병을 맛볼 수 있는 유료 시음회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또한 10월 27일 오후 2시에는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대강당에서 홍콩 사굉경매회사 총재이자 보이차 대장가인 저우쯔(周子) 총재를 초청해 일반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인사 "조사 뜻 잇고 계율 새긴다"

10월 16일, 개산 122주년 다례재
16~17일 66회 보살계 수계대법회
도량 곳곳 '국화장엄'…자비나눔도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개산 1224주년을 맞아 개산종조와 역대 조사의 뜻을 기리고 계율과 경전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대규모 법석을 마련한다.

개산종조 및 역대 조사 다례는 16일 오전 10시 대적광전에서 시작해 조사전과 비림으로 이어진다. 해인사 개산조인 순응·이정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리고, 법보종찰의 수행가풍을 이어온 역대 조사들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다.

오후 4시부터는 제66회 보살계 수계대법회가 시작된다. 동참자들은 대적광전 앞에 모여 경내 각 전각을 참배하고 저녁예불에 동참한다.

오후 7시 보경당에서는 '해인삼매 법문'을 주제로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과 팔만대장경연구원장 경암 스님, 율학승가대학원장 금강 스님이 차례로 법문한다.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는 철야기도를 봉행한다.

17일 오전 9시 30분에는 탑마당에서 육법공양과 헌향·헌다·헌화 등 불공의식을 봉행한 뒤 해인총림 방장 대원 대종사의 수계법문을 청한다.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인 보살계 수계의식이 진행된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을 전계아사리로, 경암 스님을 갈마아사리로, 금강 스님을 교수아사리로 모신 가운데 동참자들은 관정과 연비의식을 통해 계를 받아 지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할 것을 서원한다.

오후 1시에는 '제2차 대방광불화엄경 완독대법회' 제17회 독경이 봉행된다. 〈화엄경〉 독경과 축원, 회향게에 이어 꽃비를 뿌리는 산화락으로 법석을 장엄하며 자비나눔기금 전달식도 열린다.

오후 2시부터는 화엄시식과 장경판전 순례가 이어진다. 동참자들은 영단에 꽃을 올려 영가를 추모하고,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장경판전을 순례하며 법보종찰의 역사와 수행정신을 되새긴다. 이후 해인도 요잡과 소전의식을 봉행하고 계첩을 배부하며 수계대법회를 회향한다.

이와 함께 10월 한 달간 일주문과 대적광전 일원에서 '천년의 가을, 해인사 국화향에 물들다'를 주제로 국화전시를 진행한다. 도량 곳곳에 연꽃과 코끼리, 탑 등을 형상화한 다양한 국화 조형물이 선보여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울경 화합의 하모니 '제3회 통도사 합창제'

10월 5일, 통도사 특설무대서
말사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협연
어린이합창단 첫 무대 올라 감동


부울경 지역을 대표하는 사찰 합창단이 동참해 무대를 빛냈다. 합창단은 울산 정토사 태화합창단, 마산 정법사 분다리카합창단, 김해 동림선원 불모합창단, 울산 정토사 가람어린이청소년합창단, 부산 홍법사 불광합창단, 울산 백양사 삼보합창단 등이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개산 1381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 기간 중 산사를 찾은 시민에게 화합과 상생의 하모니를 선사했다.

통도사는 10월 5일 삼성반월교 옆 야외무대에서 '제3회 통도사 합창제'를 개최했다. '마음을 모아, 하나의 화음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합창제는 통도사 우담바라합창단을 비롯해 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각 합창단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참가 단체들은 '마하반야바라밀', '석불의 고뇌', '촉루품' 등 정통 찬불가뿐만 아니라 대중 가요를 함께 불러 흥겨운 무대를 선사했다.

특히 '통도사 어린이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3월 창단된 어린이합창단은 이날 '달려라', '다 잘 될 거야'를 합창하며 불교와 삶을 연결하는 노래 공양을 올렸고, 관객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이와 함께 퓨전국악팀 '국악인가요'와 남성 팝페라 그룹 '빅맨싱어즈'의 특별 공연이 더해졌다.

공연의 대미는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연합 합창이 장식했다. 모든 합창단원이 한목소리로 '우리도 부처님같이', '통도사의 향', '부처님 오신 날' 등을 노래하며 화합의 절정을 이뤘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합창이라는 방편을 통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도반들과 마음을 나누어 온 시간들이 단원들의 신행에 깊은 자양분이 됐을 것"이라며 "통도사 합창제가 산문 안팎에 잔잔한 울림을 전하는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덕민 대강백 초청 '선문염송' 특강

11월 1~3일, 선문화관서
승가 대상 선불교 진수 전해


한국 선불교의 중심이자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인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선문화관 강당에서 일해당 덕민 대강백 초청 '선문염송(禪門拈頌)'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전국의 승가(비구, 비구니)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시간은 11월 1일과 2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3일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이번 특강은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킨 범어사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경허, 동산 스님 등 당대 선지식들이 주석하며 납자들을 길러낸 참선 근본도량 범어사가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고 수행 가풍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강의 텍스트인 〈선문염송〉은 고려시대 수선사 진각국사 혜심(慧諶) 스님이 1226년 편찬한 불교 공안집이다. 역대 조사들의 공안 1125칙에 후대 선사들의 염(拈)과 송(頌) 등 착어를 집대성했다. 간화선 수행자들에게는 본래면목을 찾는 데 필요한 핵심 지침서, 이른바 '화두공부의 문을 열어주는' 책으로 알려졌다.

강연을 맡은 일해당 덕민 스님〈사진〉은 승가에서 대표적인 강백으로 꼽힌다. 1954년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1968년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청암사와 흥국학림 등에서 수학하고 태동고전연구원에서 한학을 연찬했다. 범어사와 불국사 승가대학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기림사 성림금강학림 대학원장을 맡으며 후학 양성에 매진해 왔다. 051-508-3122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명대사 애민정신 계승"

10월 6일, 부산불교연합회
열반 416주기 추모대재 봉행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는 10월 6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 사명호국광장에서 '사명대사 열반 제416주기 추모대재'를 엄수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회장 정오 스님과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과 이윤희 부산불교연합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1부 행사인 호국충혼대재는 부산영산재보존회가 주관했다. 불교 전통 작법과 바라춤이 펼쳐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2부 추모대재는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의 음성 공양과 사부대중의 헌화 및 육법공양으로 문을 열었다.

회장 정오 스님은 대재사를 통해 "대사의 헌신은 불교적 자비의 완성"이며 "현재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대립을 부처님의 지혜로 녹여내는 것이 호국불교의 참된 계승"임을 역설했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동체대비의 원력으로 서로를 보듬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불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윤희 신도회장은 호국발원문 낭독을 통해 "선사의 깊은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화합과 국가 번영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부처님 전에 올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법사, 비로선원 선명상센터 개원

10월 3일, 정법연화축제 개최
차·명상·불교문화 아우른 공간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창건 114주년을 맞아 차와 명상, 불교문화가 어우러진 축제를 열고 도심 속 새로운 수행 공간인 '비로선원 선명상센터'를 개원했다.

정법사는 10월 3일 경내 일원에서 '창건 114주년 정법연화축제 및 비로선원 선명상센터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114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사찰의 문턱을 낮춰 차와 명상, 문화로 시민들과 만나고 현대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

'비로선원 선명상센터'는 정법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온 포교 원력을 오늘의 시대에 맞는 수행문화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비로선원은 170평 규모로 지하 1층 '소래원'은 소리·영상을 활용한 명상공간으로, 1층 '무디따'는 차문화와 대중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2층 선방에는 화엄삼존불과 법성화엄도를 봉안해 참선과 명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앞으로 수행과 명상, 정진과 기도가 살아 숨 쉬는 도량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곤론마루호 희생자 추모제 봉행

10월 5일, 대원각사 특설무대


83년 전 일본 앞바다에서 침몰한 관부연락선 곤론마루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 없는 평화를 발원하는 추모제가 열렸다.

부산 대원각사(회주 안도 스님)는 10월 5일 '제12회 곤론마루호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했다. 한일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추모제에는 유가족과 불교·기독교·성공회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황령사 주지 정산 스님은 추모사에서 곤론마루호 사건을 비롯해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날의 희생을 단순한 숫자로 기록되는 역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삶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조선인이나 일본인이나 국적과 시대를 넘어 희생한 모든 영령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편히 쉬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국악과 명상으로 마음을 쉬다

광산사 '휴 명상음악회' 개최


창원 광산사(주지 해륜 스님)가 전통 국악과 불교 명상을 접목해 일상에 지친 대중에게 쉼과 마음의 평안을 전했다.

10월 5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회 '휴(休) 명상음악회'는 가야금 선율을 통한 이완 명상,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 호흡집중명상, 감각과 생각을 알아차리는 통합명상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국악의 잔잔한 선율과 싱잉볼의 맑은 울림 속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며 내면의 고요를 체험했다.

통합명상을 지도한 주지 해륜 스님은 "생각은 없앨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다"며 "생각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휩쓸리기보다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산사는 이날 제5회 산사음악회 '천년의 울림, 광산사 음악회'도 마련해 지역민과 함께 가을 산사문화의 장을 이어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